

## 대학생 아침밥 챙기고 쌀 소비 늘린다

도·농협·도내 대학 업무협약 체결  
대학, 아침밥용 충남 브랜드 쌀 구입  
도·농협, 쌀 구매 금액 30% 지원키로

전국적으로 쌀 소비가 급감하며 창고에 쌀이 쌓여가고 있다.

국내 20대 10명 중 6명은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농협·도내 대학 등과 손잡고 대학생 아침밥에 사용되는 고품질 쌀을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들의 건강을 챙기고, 충남 쌀 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도는 8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공주대, 순천향대, 단국대 등과 '아침밥 먹기·충남 쌀 소비 촉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농협, 도내 대학이 협력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 대학생 건강을 증진하고, 쌀 소비 확산을 통한 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대학생 아침밥 먹기 등 충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

도내 대학은 대학생·교직원 대상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과 고품질 충남 쌀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국립공주대, 순천향대, 단국대 천안 캠퍼스 등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한다.

농협중앙회와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충남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 쌀 소비 촉진 홍보와 함께 아침밥 먹기 운동 확산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쌀 재고 적정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각 대학이 구내식당을 통해 대학생에게 제공할 아침밥용 충남 브랜드 쌀을 구입하면, 도와 농협이 구매 금액의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 대학 종학생회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아리 활동, 학보 게재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도는 아침밥 먹기·충남 쌀 소비 촉진 활동이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아침밥 먹는 문화 정착을 돋고, 쌀 소비 확산 및 재고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대학생의 식비 부담 경감, 아침밥 먹는 습관 형성 유도, 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도내 29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농업과 041-635-4045



### 맨손으로 전어 잡아요

8월 24일 서천군 서면 흥원항에서 개막한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에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맨손전어잡기 참여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 시기에 전어는 뼈가 부드럽고 살이 통통해 구이로 즐겨 먹어 가을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이번 축제는 9월 8일까지 이어진다.

/서천군

## 글로벌 4개 기업, 충남에 2억 달러 투자

도, 코닝정밀소재 등과 협약  
천안·아산·당진에 공장 신증설

충남도가 미국·독일·일본 등 3개국 4개 글로벌 기업과 2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8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뉴포스페셜티머티리얼스코리아(미국), 코닝정밀소재(미국), 토와한국(일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독일),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등과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이들 4개 기업은 천안과 아산, 당진 등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해 제품 생산 공장을 신증설하고,

모두 307명의 인력을 고용한다.

먼저 뉴포스페셜티머티리얼스코리아는 첨단 반도체 공정 수요에 맞춰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내 5500m<sup>2</sup>의 부지에 반도체 소재 물질 생산·연구시설을 신증설한다.

뉴포스페셜티머티리얼스코리아는 세계 전자·운송·건설·수자원·의료·산업 안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천안에서 생산 시설을 가동 중이다.

코닝은 정밀소재 유리, 세라믹, 광물리 분야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첨단 소재 제조에 필요한 차세대 공정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아산에 위치한 코닝 정밀소재의 생산 설비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반도체용 몰딩장비 제조업 분야 세계 1위인 토와한국은 천안 3공단 내 1만 6136m<sup>2</sup>에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성형 설비 제조시설을 신규 확장키로 했다.

베바스토코리아는 당진 송산외국인 투자지역 내 기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팩 생산 공장을 증설, 생산 역량을 확대한다.

베바스토는 전 세계 자동차 부문 100대 공급업체 중 하나이다.

4개 기업은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56

### AI가 알려주는 용어풀이

#### (문) 충남도의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에 대해 알려줘



답) 농업 모빌리티는 농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동 수단으로, 주로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등의 기계와 함께 사용됩니다.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클러스터 내에 농기계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충남대는 농기계 모빌리티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협력하며, 한국기계연구원은 연구 인력과 장비,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네이버 AI 검색 Cue:

### 도정 비전

#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 지면안내

내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3면
충남 방문의 해	7면
이색박물관을 찾아	8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추석 농사랑 선물세트	16면



# 삽교평야서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선도'

도·예산군·충남대·기계연·LS엠트론 업무 협약  
농기계 디지털기술 R&D 지원센터 유치 도전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다.

도는 8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예산군, 충남대, 한국기계연구원, LS엠트론 등과 충남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 농업은 개인의 경험과 숙련

도에 의존했던 농작업을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첨단 농기계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도는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농기계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유치, 세계 농기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신시장에 대응하고, 충남 주력 산업인 모빌리티를 농업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농기계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센터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 2만 6519 m<sup>2</sup> 부지에 2029년까지 200억여 원을 투입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는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시증하는 국내 최초 기관으로, 현재 국내 주요 농기계 기업들이 연구소 설치 등을 통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디지털 기반 원예 관제 시스템 및 농기계 주요부품 성능 평가, 신뢰성 검증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기업이 농기계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센터 구축 사업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충남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 등을 위해 맺었다.

도와 예산군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내에 농기계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충남대는 농기계 모빌리티 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며,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충남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인력과 장비,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

엘에스(LS)엠트론은 농기계 장비와 관련 연구 장비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협력한다.

한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읍 일원 166만 6000m<sup>2</sup>에 2027년까지 348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산업과 041-635-2235



2024 보령컵국제요트대회 '성료' 일본, 대만 등 11개국 175명의 선수가 참가한 '2024 보령컵국제요트대회'가 8월 18일 보령요트경기장 틀설무대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보령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수역에서 진행됐으며, J70 크루저 요트(오픈부) 종목에서 말레이시아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평택시청팀, 보령시청팀이 각각 2, 3위의 성적으로 뒤를 이었다.

## 청양 기후대응댐 건설 시 500억+α 지원

이주 정착·생활 안정 지원금  
도로·공원 등 주변 지역 정비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청양 지천 수계를 포함한 가운데, 충남도가 댐 건설 확정 시 이주민과 주변에 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댐 건설 과정에서 도 등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편입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 ▲댐 주변 지역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로 나뉜다.

먼저 편입지 이주민에 대해서는 댐 건설 공사 착공 전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주 정착 지원금은 세대 당 2000만 원이며, 생활 안정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인 당 250만 원 씩 세대 당 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주민 가운데 10가구 이상이 희망할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 대신 희망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농지

개량,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공원, 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전망대 등 복지문화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300억 원~500억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돌레길, 캠핑장 등 여가·레저시설 지원과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투입 사업비는 매년 7억 원 가량으로, 빌전 및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1

## 국방특위 출범…기관 유치 앞장

위원장에 김성일 전 국방대 총장  
정부 건의·홍보 등 유치활동 나서

충남도는 8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기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는 국방 관련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국방신속화 특기술연구원·국립군사박물관 등 주요 국방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과 이전 논리를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번 제2기 위원회는 예비역 장성과 산·학·연 전문가, 도민 대표 등 16명으로, 임기는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간이다.

위원장에는 기관 이전 논리 구상, 구체적 실행안 도출 등 '국방수도 충남' 완성을 위한 비교 우위 확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성일 전 국방대 총장(예비역 중장)이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통해 전략 자문, 정책 제언, 홍보 지원 등

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정부·국회·국방부 간의, 개별 기관 설득 등 도내 국방기관 유치 활동 전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국방기관 유치 추진 현황을 살폈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지난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를 논산에, 올해 국방미래항공연구센

터를 태안에 각각 유치한 바 있다.

/공공기관유치과 041-635-3385

## "쌀 소비 촉진·적정 생산 투트랙"

### 제65차 실국원장회의서 강조

충남도가 쌀 소비가 급감하며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쌀 소비 촉진과 적정 생산 동시 추진에 나선다.

충남도지사는 8월 26일 도청 중회

의실에서 개최한 제65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아침밥 먹기, 충남 쌀 소비 촉진' 협약을 거론하며 "15개 대학에 충남 쌀 30%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아침식사를 제공해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 쌀 소비를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쌀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벼 재배 면적 감

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에서도 매년 감축을 시행하지만 적정 생산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감축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도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과감한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양 지천 수계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22대 첫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해서는 도정 현안 관련 법안 준비를 주문했다.

또 글로벌 4개 기업과 2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을 언급하며 "반도체 등 지역 첨단전략산업 성장과 함께 외국계 우량 기업 일자리 300개 창출이 예상된다"고 했다.

/공보관 041-635-4915

### 농협, 1억 원 상당 충남쌀 기탁

#### 도내 취약계층 지원키로

이날 엔에이치(NH)농협은 1억 원 상당의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도에 기탁했다.

도는 이날 기탁받은 쌀을 충남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47

**함께 지켜요!**

##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일상생활에서**

- ❶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❷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❸ 기침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 가리기
- ❹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

**코로나19 감염 시**

- ❶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
- ❷ 불필요한 만남 자제
- ❸ 밤열,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❹ 회사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평가 등 제공

**고위험군**

- ❶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 ❷ 대규모 인원이 실내에서 모이는 행사 등은 참여 자제
- ❸ 밤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 방문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 ❶ 종사자·보호자·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
- ❷ 밤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
- ❸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충남형 리브투게더 특별공급 확대

## 내년 주요정책 추진보고회

충남도가 민선8기 4년 차인 내년, 가시적인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도는 8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실국원별 내년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충남 라이즈 사업 본격 추진 ▲충남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등을, 자치안전실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다각적 체납 징수 활동 강화 ▲충청남도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 등을, 소방본부는 ▲지능형 차세대 119 신고 접수 플랫폼 구축 ▲대용량 배수차 및 배수펌프 도입·배치 ▲119 구조견센터 신설 등을 내놨다.

산업경제실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 모듈리센터 구축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연구개발(R&D) 추진 ▲차량용 소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검증 기초 인프라 구축 ▲농기계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센터 구축 ▲탄소 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용 후 배터리산업 활성화 지원 ▲유무인 항

## 신규사업

-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 도심형 수직농장 '시티팜'
-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

## 계속사업

- 충남대 내포캠퍼스
-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 모빌리티 첨단 산단 조성 등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제시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디지털무역종합센터 설치를 통한 해외마케팅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시장 충남관 운영 등을, 복지보건국은 ▲충남형 365×24 돌봄 체계 구축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등을, 여성가족정책관은 ▲12세 이하 아이돌봄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고려인 동포 정착 및 자립 지원 등을, 청년정책관은 ▲대학로 보행 환경 종합 정비 추진 ▲청년 친화도시 지정 운영 등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충남 방문의 해 연계 행사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진흥 사업 등을, 농림축산국은 ▲탄소 중립형 스마트팜 혁신클러스터 구축 ▲도심형 수직농장 '충남형 시티팜' 구축 등을, 농업기술원은 ▲충남 미래형 사과다축과원 기반 조성 등을, 기후환경국은 ▲수소교통 복합기지 신설 및 정비 체계 구축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조성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 ▲지천수계 댐 및 지하수 저류댐 조성 추진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규제 신규 화학물질 감시 확대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고 보고했다.

건설교통국은 ▲수도권 전철 흥성역 연장 ▲격렬비열도 도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균형발전국은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 ▲충남경제자구구역청 개청 등을, 해양수산국은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생태 관광 기반 구축 ▲스마트팜 특화항만 조성 방안 연구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각 실국은 또 내년 주요 계속 사업으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

다목적 소방헬기 2호기 본격 운영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충남 벤처투자펀드 조성·운영 ▲외국인투자 지역 조성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백제고도 한옥단지 조성 추진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スマ트 축산단지 조성 ▲충남형 리브투게더 특별공급 확대 등을 꺼내들며 중점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책기획관 041-635-3112

## 16세기 충청도 관찰사 책판이 돌아왔다

### '소재선생문집' 책판 환수 반출 문화유산 아카데미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매를 통해 조선 전기 문신 노수신(1515~1590)의 '소재선생문집(蘇齋先生文集)' 책판(冊板)을 낙찰받아 국내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노수신은 조선 전기 충청도 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낸 인물로 퇴계 이황 등과 학문적으로 교류하며 성리학 발전에도 힘 쓴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선생문집'은 노수신의 글을 모은 문집으로, 이번에 환수한 책판은 제6권 시(時)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해당 책판이 반출 후 장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표면에 황금색 칠을 한 흔적



'소재선생문집' 책판

이 있어, 국외 반출 유물이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낙중 원장은 "이번 소재선생문집 책판 구입은 충청도 문화유산의 환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앞으로도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환수·연구·활용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반출 문화유산과 관련해 '충남 문화유산의 일본 반출과 반환'이라는 주제로 공주(9월 24일~10월 22일)와 내포(10월 10일~11월 7일) 지역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전화(☎041-840-5072) 또는 이메일(jinhontop@cihc.or.kr)로 하면 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41-840-5072

## 도 전역 필수 의료 체계 구축

### 백제종합병원 공공의료본부 출범

충남 논산 소재 백제종합병원이 논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 전역에 걸쳐 체계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됐다.

도는 8월 23일 백제종합병원 공공의료본부와 함께 논산문화원 향기마루에서 '백제종합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백제종합병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에서 충남 논산권 신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주요 역할은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 ▲지역별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조정 등이다.

백제종합병원은 앞으로 원내 신설

한 공공의료본부를 통해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정부 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와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을 연계해 공공 보건의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고위험 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 증진 협력사업 ▲재활 의료 및 지속 관리 협력사업 등 지역사회와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도내에선 ▲천안권(천안·아산) 천안의료원 ▲공주권(공주·계룡) 공주의료원 ▲서산권(서산·당진·태안) 서산의료원 ▲홍성권(보령·청양·홍성·예산) 홍성의료원 ▲논산권(논산·금산·부여·서천) 백제종합병원 등 총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정부 및 보건의료기관 등과 관계망을 구축하고 필수 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정책과 041-635-4315



# 오스템임플란트, 천안에 공장 구축

투자규모 1400억→3742억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힘 실어



전국 최대 규모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가 충남 천안에 3742억 원을 들여 새 공장과 연구시설을 짓는다.

도에 따르면 천안시와 오스템 임플란트는 8월 16일 천안시청에서 생산시설·연구개발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21년 도와 천안 등 4개 시군, 17개 기업 간 맺은 합동 투자협약이 확대된 것으로, 기준 합동 투자협약 당시 1400억 원이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투자 규모는 이번 협약을 통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번 협약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8만 9114m<sup>2</sup> 부지에 치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기자재 등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센터 등을 신설하고

200여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천안은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순천향대병원, 각종 연구기관 등 치의학 연구개발과 줄기세포 조직 재생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치의학 연구 최적지다.

이러한 치의학 관련 기반을 바탕으로 도는 2022년 11월 천안시, 단국대,

충남치과의사회, 오스템임플란트 등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꾸준히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천안 설립의 당위성·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유치 활동을 펼쳐 있다.

도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의 전국 최대 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만큼 앞으로 천안의 치의학 연구개발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기업들과 함께 도내 치의학 발전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정책과 041-635-4301

## 충남내포혁실플랫폼, ‘충남공감마루’로 재탄생

건물 명칭 변경·시설 개선  
홍예공원 방향 출입구 설치



충남도가 충남내포혁실플랫폼의 명칭을 ‘충남공감마루’로 공식 변경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는 8월 22일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20에서 ‘충남공감마루 건물 명칭 변경식’을 개최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민관 협치 활성화 공간인 충남내포혁실플랫폼의 역할을 도민에게 더 쉽게 알리고 도민 친화·소통 공간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추진했다.

충남공감마루는 지난 2021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39m<sup>2</sup> 규모의 민관 협치 공간으로 문을 열었으며, 교육

장과 회의실, 코워킹라운지, 카페 등을 갖췄다.

도는 명칭 변경과 함께 출입구를 추가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이용 시간 및 프로그램도 확대해 이용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특히 홍예공원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출입구의 보도블록

단차를 정비했으며, 점자 표지판과 음성 유도 안내 장치 등 무장애(베리어프리) 시설도 강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으로 홍예공원 탐방객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충남공감마루 내 카페 주중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 연말까지 숲속 작은 음악회, 뜯자리 영화관,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플리마켓 등 다양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충남공감마루는 충청남도공의 활동지원센터, 충남자원봉사센터, 바른 개살기 충청남도협의회, 충남사회경제 지원센터 등 13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다.

/새마을공동체과 041-635-3480

## 국민의식개혁운동 강력 추진 제안

### 독자투고

우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36년간 일제치하에 신음하며 목숨을 건 투쟁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독립이 되었다. 독립의 기쁨도 잠시, 6·25 발발로 국토는 잣더미가 됐으나 국제구호의 손길 아래 온 국민이 단결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전세계가 놀란 경제 개발과 산업화를 앞당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반도체와 IT분야 등에 서 두각을 나타내며 경제도약에 매진하고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와중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인륜도덕이 지켜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자녀 출산은 부모의 책임임에도 결혼도 자녀도 기피하면서 학가족으로 악화, 가족공동체가 붕괴되기 예 이르렀다. 여기에 물질민족주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가정의 건전성과 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은 물론 국가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공동선(共同善)의 목표도 추구할 수 없게 됐다. 사회 전

반에선 비도덕주의와 물질주의에 매몰돼 불신과 갈등, 분열, 선동, 이념 대립 등 종체적인 혼란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결혼과 출산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국가 사회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교육을 연계시켜 인성과 윤리도덕을 생활화하여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

‘잘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근면·자조·협동을 기반으로 한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그 정신을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시켜 선진국 시민답게 온 국민이 심기일전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현존하는 새마을 기구와 조직을 보강해 제도·행정적 대책과 방안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충효예(忠孝禮)는 모든 행위의 생활규범이 돼야 한다. 충효에가 가정과 사회, 국가 경영의 근간이 되도록 임법 사법 행정권이 합심 협력하여 윤리 도덕의 복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효(孝) 사상과 정신은 국가사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그 가정의 구성원은 효행이 계승되어 실천해 온 가운데서 그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지도자는 국가사회를 위해 공헌할 것이다.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윤리도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제안한 과제들을 실천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어 우리나라가 동방의 빛이 되길 기대한다.

/박상현 한국전례원 명예교수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원고 보내는 곳:  
cnnews@korea.kr

문의: 041-635-4932

\*도정신문 원고로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충남안전체험관, 외국인도 각광  
충남도 안전체험관은 중국 청소년 등 42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국 청소년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한국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누리집 및 대표전화(041-559-9740)로 문의하면 예약 및 자세한 체험관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89

## 부여 ‘알밤’ 맛 몽쉘·카스타드 출시

행안부·롯데푸드·부여군 협약  
인구감소지역 특화 상품 제작

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넘어 지역관광 활성화, 유통관로 개척 등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10월 출시 예정인 부여 밤을 활용한 과자 및 아이스크림 등 9개 제품의 패키지는 ‘밤이 아름다운 부여’라는 문구와 함께 부여군의 유명 관광명소 이미지를 담아 출시한다.

해당 제품은 시즌 한정판으로 판매되는데, 몽쉘, 카스타드, 빙초, 롯산, 크런키바, 말링카우, 찰떡아이스, 찰떡파이, 꼬마호떡으로 전국에 유통되어 부여 밤의 인지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여군은 전국 제일의 품질 좋은 밤을 생산하고 있다. /부여군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2024년 충남

# ‘지역특화’ 직업훈련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 | 충남도민 혹은 도내 소재 기업 재직자

충남 ‘수상레저산업 활성화’ 양성과정 : 조종면허 2급

모집기간 및 정원	훈련기간 및 시간
2024. 8. 14.(수) ~ 9. 30.(금) *20명 정원모집 시 마감	2024. 11. 3.(일) / 4.(월) 충 택일 실기시험 2024. 11. 6.(수) 조종면허 훈련시간 08:30 ~ 17:00

교육장소 | 충남 조종면허 시험장(충청남도 아산시 신정호길 15-14)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동본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접수 후 교육일 전 까지 조종면허(일반조종 2급) 필기 합격증, 실기시험 접수증 함께 제출(수상레저종합정보 ‘조종면허 시험’ 홈페이지 참조, boat.kcg.go.kr)

접수 | scc@cnsm.or.kr

문의처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041-544-6993

충남 ‘지역 농산물 특화’ 양성과정 : 떡제조 기능사

모집기간 및 정원	훈련기간 및 시간
2024. 8. 14.(수) ~ 9. 3.(금) *20명 정원모집 시 마감	2024. 9. 7.(토) ~ 11. 2.(토) 매주 토요일(09:00 ~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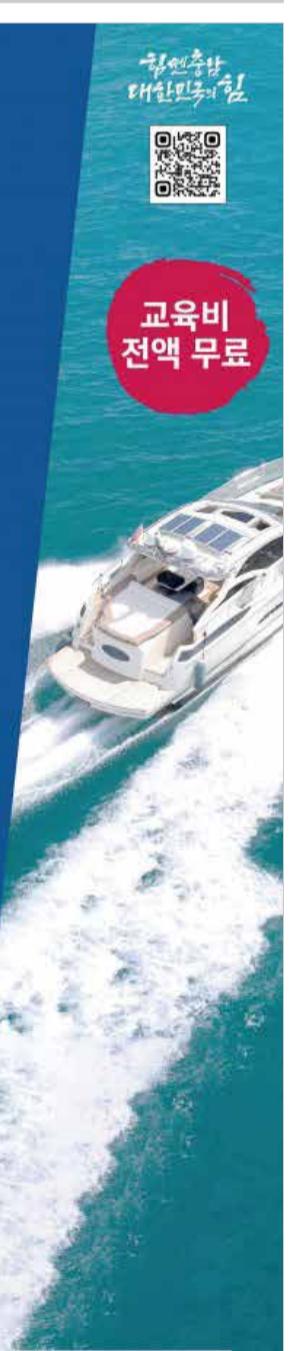
교육장소 | 세일직업전문학교(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로 12)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동본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접수 | namyoonju@naver.com

문의처 | 세일직업전문학교 ☎ 041-523-7611

교육비  
전액 무료



# 공주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102세대 공급

2027년까지 268억원 투입 건립  
양질 주거환경·편의시설 제공

공주시에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102세대가 공급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월 16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근로자에게 부족한 주거수요 해소와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양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주택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탄천면 안영리 일원 기존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해 102호 규모의 근로자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한다.

이곳에는 주거공간 외에도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 세탁시설, 라운지, 소모임실, 공유오피스 등의 공간도 함께 조성하여 입주민에게 주거와 편의공간이 함께 결합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156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복지센터가 임대분양하고 있으나 상시 입주 대기 수요가 발생하

는 등 기업들이 근로자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 고용에 늘 애로사항이 있었다.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공모 선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건립으로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주시 거주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업의 청년층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수요에 맞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선정 관련 조감도.

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 확대하는 등 공주시 유입 인구의 안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 가을 알리는 팜파스 활짝

태안군 남면 청산수목원에 8월 16일 팜파스 그라스가 활짝 피어있다. 이날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은 팜파스 그라스 사이에서 선뜻 다가온 가을 느낌을 즐기고 있다.

/태안군

## 한국전통주연구소, 예산에 ‘등지’

국가 지정 우리술 교육기관  
“전통주 대중화·교육 정진”

한국전통주연구소가 예산군에 등지를 틀고 새롭게 출발한다.

군에 따르면 우리술에 관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한국전통주연구소는 8월 17일 예산읍 산성리 옛 협연초 건물 1층에 입주했다.

한국전통주연구소는 1999년 10월 설립된 국내 최초 전통주 교육기관으로 1987년부터 전국 가야주 발굴활동과 보존, 기록을 비롯한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야주 527종을 재현하는 등 현재 국가

지정 우리술 교육훈련기관(제7호)으로 전통주 연구의 산실이자 대중화운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오래도록 위치했던 한국전통주연구소가 예산으로 오게 된 계기는 한국전통주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명주대상을 군 단위 최초로 함께 개최하는 등 군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장은 “예산군을 알게 되고 새롭게 터를 잡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산에서 전통주를

사람들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고 전국 최고의 우리술 교육 기관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구 군수는 “전통주 명인인 박록 담 소장께서 예산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예산군이 전통주 산업을 육성시켜 전통주의 메카 도시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한국전통주연구소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통주연구소는 개소 이후 전통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며, 올 10월에는 삼국축제와 연계해 지난해보다 더 새롭고 알찬 제14회 대한민국 명주대상을 개최 할 예정이다.

/예산군

## ‘홍성마늘’ 베이커리 시장 공략

지역빵집 손잡고 상품 출시  
디저트 레시피 기술 이전

홍성마늘이 맛과 향을 무기로 베이커리 시장을 공략하며 확장성을 갖춘 홍성 특산품시장에 블루오션을 창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클로로필 성분으로 마늘 끝이 초록색을 띠어 유명세를 탔고 있는 홍성마늘이 지역 내 동네빵집과 손잡고 잇따라 디저트를 상품을 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홍성마늘’ 브랜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갈릭 디저트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홍성마늘 디저트 레시피를 개발

한 데 이어 올해는 ‘홍성마늘 동네빵집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홍성마늘 디저트를 접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진행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커피오감과 노평래베이커리로 각 사업장의 특색을 살려 커피오감의 ‘홍성마늘 스콘 디저트 BOX’와 노평래베이커리의 ‘홍성마늘 육쪽 크림치즈빵’을 대표 메뉴로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도 분점을 개설한 베이커리 카페 ‘더호봉’에서 판매하고 있는 ‘홍성마늘빵’과 ‘홍성마늘 스콘’은 판매량 1위를 자랑하며 홍성마늘을 활용한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품 개발



홍성마늘 육쪽 크림치즈빵.

을 넘어 지역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에 선정돼 작년부터 2년간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홍성마늘의 재배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공·마케팅 분야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군

## 태안군 생활체육 인프라 넓힌다

파크골프·마라톤·태권도 등  
대규모 체육대회 연이어 개최



태안군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나섰다. 군은 남면 달산리 옛 서남중학교 땅에 연면적 1340㎡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 2022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고,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2025년 준공되면 다목적경기장과 무대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간이 조성된다.

원북면 반계리 일원 3848㎡에 총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 짓는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는 목욕탕·체육관·도서관 등을 갖춘다. 이르면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태안읍 동문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즐길 수 있는 태안 반다비 체육관을 2997㎡ 규모로 건립한다. 다목적경기장, 보치아 경기장, 탁구장 등이 들어서며 2026년 준공 목표로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

남부권(안면·고남), 중부권(근흥·소원), 북부권(원북·이원) 등 3개 권역 별에 파크골프장도 만든다. 남부권(안면읍 중장리)과 중부권(근흥면 마금리) 올해 12월 공사에 들어가고, 북부권은 조성을 준비 중이다.

군 관계자는 “꽃과 바다의 도시 태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 당진 호박고구마 첫 수확

국내육성품종 호감미·호풍미  
맛·모양 뛰어나 인기 높아

당진시는 8월 15일부터 당진호박고구마가 폭우와 폭염·기뭄을 견디고 첫 수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확하는 고구마는 국내 육성 품종인 호감미와 호풍미로 맛과 모양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특히 당진은 호박고구마 주산지로 외래품종을 주로 재배해 왔으나 고질적인 덩굴쪼김병으로 재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다.

이에 시 농업기술센터는 2년에 걸쳐 국내육성품종인 호풍미 조직배양묘를 보급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문제를 해결했다. /당진시

시 고구마연구회 이은철 부회장은 “4월에 조기재배한 고구마를 수확해 큐어링(아물이) 처리 후 세척하고 선별해 서울 경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다”며 “고구마 소비가 줄어 가격형성이 잘 안돼 어렵지만 당진고구마은 워낙 타지역에 비해 상품성이 뛰어나다 보니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당진고구마가 명품 고구마로 인정받는 이유는 고구마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조직배양묘를 활용, 자가육묘로 좋은 종순을 생산해 심고 있기 때문”이라며 “황토와 마사토가 적당히 섞여 있는 최고의 밭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고품질 고구마가 요구하는 맛·모양·색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

# 충남의 대표적 늦여름 축제



## ⑫ 장항맥문동꽃축제 &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예전에는 한여름에 축제를 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더위 때문이 다. 그러나 보니 국내 1000여 개 축제는 나들이하기 좋은 봄과 가을에 집중돼 있다.

이런 관례를 깬 것은 다름 아닌 올 해로 27회를 맞은 보령머드축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여름 축제가 생겼다. 충남에서는 7월에 금산삼계탕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가, 8월에는 서천 장항맥문동꽃축제와 청양 고추구기자문화축제가 대표적이다. 충남도 정신문에서는 8월 말 열리는 두 축제를 100배 즐길 수 있는 ‘꿀Tip’을 안내한다.

### 서천 장항맥문동꽃축제, 8월 27일까지 개최

장항송림산림욕장은 매년 이맘때면 600만 본의 보랏빛 맥문동꽃이 장관을 이룬다. 1km 구간에 이르는 소나무숲은 화려한 보랏빛으로 수놓는다. 해송 숲과 해안이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숲 속에서는 시원함이 느껴진다.

곳곳에 설치된 보라색 프레임의 액자는 인생샷을 건지기에 충분하다.

축제 기간에는 샌드아트와 가죽공예, 퍼즐맞추기, 송립 해변의 버려진 유리 조각을 이용한 나만의 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존이 마련됐다. 보랏빛 맥문동 빼빼로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퍼플색 드레스 착용자에 대해선 이벤트가, 그리고 브런치 파티도 열린다.

무엇보다 축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 짜야 한다.

맥문동꽃의 매력을 흡뻑 빠진 뒤에는 꼭 방문해야 할 곳은 바로 인근에 있는 스카이워크 전망대다. 높이 15m, 길이 236m로 조성된 장항 스카이워크는 해송림을 밟아래에 두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

을 감상할 수 있다. 아름다운 노을까지 감상하기 위해선 오후 시간대가 좋을 듯 하다.

하루 서천여행을 계획한다면 축제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문을 권한다. 실내공간이어서 시원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라면 생태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기회가 된다.

서천의 음식은 간장게장, 해물칼국수, 박대, 주꾸미, 콩국수, 한산모시 떡이 유명하다.

### 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 8월 30일 ~9월 1일까지

청양군 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청양고추구기자문화축제는 전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

로 진행된다. 청양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고추, 구기자를 활용한 오감 만족 체험과 청양가요제, 전국 K-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청양고추는 말렸을 때 껍질이 두껍고 매콤하면서 고추 특유의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룬다. 특유의 알싸한 감칠맛과 향이 좋아 전국적으로 알려진 청양의 최고 특산물이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청양애(愛) 미(美)치다. 고추구기자애(愛) 미(味) 치다’.

축제는 밤이면 더욱 화려해진다. 행사 기간 내내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는 달집태우기가 진행되는 데 각자 들고 있던 색색의 풍선으로 범하늘을

장식하는 묘미를 맛볼 수 있다.

또 첫째 날(30일)에는 오후 1시 반부터, 둘째 날(31일)과 마지막 날(9월 1일)에는 오후 2시부터 ‘천원의 행복, 고추를 담아라’ 행사가 열린다. 참가비 1000원만 내면 제한 시간 내에 마음껏 고추를 담아가는 행사다. 31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99m 구기자 김밥 만들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예상 가격은 건고추 6kg(10근) 18만 원, 고춧가루 1kg당 4만 5000원으로 예상된다.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송림산림욕장 맥문동.



/충남문화관광재단 제공

## 눈·입이 즐거운 일석이조 ‘노포 기행’

### 충남에서 춤춰해!

#### ⑦ 충남 전통시장 & 음식거리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차서(處暑)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절기의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맹위를 떨친다. 이 여름을 이기기 위해선 무언가 비책이 요구된다. 여름 내내 활기를 잃었던 입맛에도 막바지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특별한 먹거리가 있다. 충남의 노포 음식거리는 수십 년의 농축된 맛을 자랑한다. 전통시장과 함께 형성된 음식거리인 만큼 재료가 신선하고 가성비까지 갖췄다.



**▶ 천안 병천시장 & 순대거리**=유관순 역사가 주도한 만세운동의 근거지, 아우내 장터는 예로부터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들며 큰 장이 섰다. 매월 1일, 6일 오일장이 열린다. 인근의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제철 농산물이 신선하고 저렴한 게 특징. 없는 게 없는 시장 구경은 늘 정겨움을 준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가성비 쇼핑을 마치고 나면 배를 채울 차례이다. 60여 년의 세월 동안 전국구 명성을 쌓아 올린 병천순대는 그 시간만큼이나 농축

된 맛을 자랑한다. 특유의 돼지누린내가 적은, 뾰얀 사골국물의 국밥은 호불호가 없다. 배추, 양파, 당면 등을 정성껏 넣어 만든 야채순대는 담백하고 쫄깃해 누구든 염지순가락을 치켜세운다.

**▶ 주소**=병천시장(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718)



**▶ 예산 삽교시장 & 곱창특화거리**=삽교시장은 예로부터 물물교환이 이뤄지던 100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 2일과 7일에 장이 열린다. 70개 점포가 주변에서 수확한 곡물, 채소류와 생선류, 생필품을 팔고 있다. 시장 안에 80년 전통의 소머리국밥집이 유명하다. 삽교곱창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소곱창과 돼지곱창 등 곱창구이, 곱창 볶음밥, 곱창전골은 식당마다 고루 맛있다. 특유의 잡내와 질김이 없고 극강의 고소함을 자랑한다. 지난해 6월부터 백종원 대표가 개발한 사과나무 훈연 돼지 곱창을 선보이며 더 유명해졌다.

**▶ 주소**=삽교시장(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2길 56-1)



**▶ 당진 신평시장 & 우렁쌈밥거리**=상설점포가 적고 노점 위주로 운영되는 예스러운 풍경의 전통시장. 2일과 7일에 장이 열린다. 1927년부터 90여 년의 긴 역사를 지녔다. 곡류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은 물론 바다가 접해 있어 꽃게, 갈치, 고등어, 조기, 오징어 등 수산물이 다양하고 신선하다. 여느 시장보다 시골 장터의 후한 인심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시장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우렁쌈밥거리가 있다. 삽교호 공사를 하는 인부들에게 우렁이 된장국을 끓여 내어 주던 것이 맛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오늘날 음식거리로 이어졌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줄지어 몰려든다. 우렁과 된장으로 만든 쌈장, 덕장, 짬장 등 세 가지 맛의 쌈장을 맛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 우렁이 쌈밥 정식, 우렁이 된장찌개, 우렁이 초무침, 우렁이 코스 및 세트 메뉴 등 다양한 메뉴를 골라 즐길 수 있다.

**▶ 주소**=신평시장(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12-17)

/이용 스토리미디어 대표

## 우주의 꿈꾸는 칠갑산 천문대

###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오로라 영상 관람 사진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는 2009년 7월 28일 개관했으며 천체투영실, 주관측실, 보조 관측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야간 입장은 1일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하루 3번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하면 간단하게 1, 2층을 돌아보고, 1층에 있는 천체투영실에서 우주영상을 보게 됩니다. 의자가 뒤로 젖혀있고, 둠 형식의 지붕 전체가 화면이 되기 때문에 환상적인 풍경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로라를 담은 영상은 당장이라도 아이슬란드로 떠나고 싶을 정도로

/도민리포터 충청도 멋쟁이

## 충남도정신문 8월 도민참여 이벤트

충남도정신문 1008호, 1010호의 7면 <충남이면 춤춰해!>에 소개된 관광지 7곳 중 1곳 또는 충남의 관광지 1곳을 방문해 인증샷과 방문 후기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쿠폰을 씁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여** 궁남지,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부여전통시장  
**금산** 월영산출렁다리, 금산산림문화타운,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기타** 충남도내 모든 관광지

**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 9월 중 당첨자 개별 안내 혹은 지면 발표





박물관에서는 미국 와이오밍주 모리슨 지층에서 발굴되어 원형이 85% 이상 보존된 길이 25m, 높이 16m, 몸무게 80톤의 세계 최대 초식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 화석을 보존하고 있다. 전 세계 2개밖에 없는 화석이며 그중 가장 많은 원형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자연사박물관 이유미 관장이 1층에 전시된 브라키오사우루스(애칭: 청운이) 표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해든

## 공룡 화석~미라 ‘자연생태계 한눈에’

### 이색 박물관

#### ⑥ 공주 한국자연사박물관

**최대 규모 최다 소장품 보유**  
수집·연구·보전·교육 이바지  
자연사 배워 기후·환경문제 대비  
“미래 준비하는 교육의 장 되길”

계룡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한국자연사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와 최다 소장품을 자랑하는 교육과 체험의 명소다.

박물관은 41,002m<sup>2</sup>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약 25만 점(지질, 육상, 해양, 민속자료 등)의 소장품을 통해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설립자 故이기석 박사는 자연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보전하고 이를 전시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과학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박물관을 개관했으며 현재 조한희·이유미 관장이 뜻을 이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조한희 관장은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 사람들이 생소해하는데, 말 그대로 자연의 역사인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등의 표본, 화석 및 그 밖의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는 박물관”이라며 “많은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국자연사박물관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1층 전시관에서는 거대한 공룡 골격과 실제 공룡화석 및 발굴 과정, 공룡시대 생태 및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으며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의 분포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공룡화석의 경우 원형 100%로 산출되는 경우 가 매우 드물어 원형 비율이 매우 유의미한 수치로 평가되는데 한국자연사박물관에서는 미국 와이오밍주 모리슨 지층에서 발굴되어 원형이 85% 이상 보존된 길이 25m, 높이 16m, 몸무게 80톤의 세계 최대 초식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 화석을 보존하고 있다. 전 세계 2개밖에 없는 화석이며 그중 가장 많은 원형을 소장하고 있다.

2층 전시관에는 우주의 역사에서부터 한반도에 분포하는 다양한 암석과 광물, 전 세계의 아름다운 보석, 시대별 다양한 화석이 전시되어 있으며 동물의 세계와 바다의 세계, 곤충의 세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철운석과 단일 개체 크기 기준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인 흰긴수염고래의 화석 등을 볼 수 있다.

3층은 자연과 인간을 테마로 지구상의 생명체에 기본이 되는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하는 식물과,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생명체인 인류에 대한 자료와 정보들이 전시되어 있다. 미라전시실에서는 한국 최고(最古)의 미라인 학봉장군미라의 실물을 볼 수 있다. 학봉장군미라는 2004년 조상의 묘 이장 중 발굴되었으며 원형 보존이 매우 잘 되어 있어 다양한 학술연구를 위해 자손의 기증으로 한국자연사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학봉장군 미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조선 초기 (1400년±20년) 정3품의 어모장군이라는 벼슬을 지낸 무관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 미라 중 가장 오래됐다. 조선시대 생활상과 장례문화를 통한 효 사상은 물론 다습한 기후를 지난 한국에서 자연적으로 미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생성 원인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출토자료로 국가중

요과학기술자료에 등록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첨단 의료 장비인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장치, X-ray, 내시경 검사로 병리학적 연구도 진행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내부 장기로부터 꽃가루와 기생충을 채취, 조사하여 사망 원인을 밝혀냈다. 왼쪽 폐에 출혈과 염증의 흔적이 있어 폐기종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관지에서 발견된 음식물의 흔적으로 음식물이 기도로 역류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탄소연대측정과 족보 추적조사로 미라의 연대를  $1400 \pm 20$ 년으로 추정하며 치아의 3차원 복원 및 치아 마모도로 40대 초반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박물관에서는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설 체험 프로그램(땅속 지구의 보물을 찾아서, 나도 고생물학자, 상상 속 공룡 만들기 등)을 비롯해 매년 다양한 주제의 기획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사전 예약으로 캠프프로그램(별 팀별 캠프, 청운 과학 캠프, 애코 사이언스 ceo 캠프, 역사탐험 캠프), 전시해설 등 보다 알찬 박물관 견학을 즐길 수도 있으며 박물관 참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박물관 홈페이지([www.krnamu.or.kr](http://www.krnamu.or.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미 관장은 “과거에 기후변화로 동·식물이 멸종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비 할지에 대한 답도 자연사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아이들이 기후변화 등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해답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장으로 사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해든 deun127@korea.kr

한국자연사박물관 전경



●오시는 길



●주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49-25

●관람시간 : 10:00~18:00  
매주 월·화요일 휴관, 공휴일 정상 개관

●관람료 : 어른 9000원, 초·중·고 6000원  
12개월이상유아 4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65세이상 7000원

●공휴일 및 주말 전시해설 및 단체관람 문의  
☎ 042) 824-4055



전시해설을 듣고 있는 어린이 관람객들



체험활동을 하는 어린이 관람객



어르신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미 관장.



학봉미라(오른쪽)와 학봉장군 증손자 미라  
사진/한국자연사박물관



김미희 어쩌다 마주친 폰카 시



## 선풍기의 소명

선풍기는 밖에 버려졌어도  
바람을 맞으면 뱅글뱅글 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벤 습관  
죽는 순간까지 하늘이 준 임무를 해냅니다

분리수거장에 선풍기 한 대가 버려져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정밀 진단을 끝낸 주인이 내다 놓았겠지요.  
가을이 바람을 데려왔습니다.  
날개가 쉼 없이 빠르게 돋니다.  
버려진 신세이고 바람 낼 필요가 없는데도 바람을 냅니다.  
거룩한 직업 정신.  
아무리 날개를 파닥여도 나올 수 없는 새 한 마리,  
저기 들어앉아 최후를 자축합니다.



신진청년예술인 - 박지희 대금 연주자



### ▶작가노트

#### [박지희 첫 번째 대금독주회 自我(자아)]

2021년 천안문화재단 후원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대금 독주회로 지난 60년을 대표하는 6곡의 대금 창작곡 연주를 통해서 국악의 우수성을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YouTube(유튜브)를 활용한 언택트 공연으로 공간의 제약 없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던 전통예술 공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금 연주자 박지희의 혼(魂)이 담긴 음악으로 전통 예술 문화계에 생기(生氣)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 ▶악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석사)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졸업
- 2021 명인을 꿈꾸다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주관>
- 2021-23 박지희 대금 독주회 自我
- 現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
- 現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학생연주단 대금강사
- 現 관악양상을 ‘후후HUHOO’, 국악실내악 ‘구음’ 동인

### ▶앞으로 공연 일정

#### ● 박지희 대금 독주회 자아 III, 집대성(集大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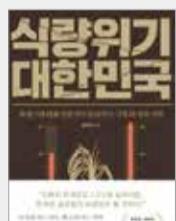
[2024 충남문화관광재단 후원 ‘충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작]

일시: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18:00~19:00

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 2층, 지하2층 충남음악창작소 Live Hall



사서들의 서재

식량위기 대한민국/남재작/웨일북  
(whalebooks)/2022

기후변화와 식량위기는 같이 언급 될 수밖에 없다. 식량위기의 배후가 기후변화이기 때문이다.

빙하기였던 2만 년 전부터 1만 년 동안 급격한 지구온난화가 시작되면서 지구 평균기온은 4도가 올랐고, 인류는 농경시대로 진입했다.

최근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1도가 올랐다. 자연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보다 25배나 빠른 것이다.

## 전문가가 들려주는 기후파국의 서막

이러한 기후변화 속에서 인구 100억 명이 먹고살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는 문제가 된다. 변덕스러운 기후, 비옥함을 잃어버린 토양, 병해충의 극성 속에서 식량 증산을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주기적으로 식량 위기에 노출될 것이고, 유럽은 아프리카의 난민 유입이라는 난제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식량을 자급하기 어려운 국가에 속하고, 세계의 식량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증가한다. 우리는 식량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화할지 여러 혁신적인 시도를 해나가며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식량 위기에 대해 쉽게 설명하며 해법을 제시해준다.

미디어나 주변을 통해 어떤 정보에 접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그 정보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

난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무뎌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인식은 새로운 정보로 바탕 교체가 되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기후변화도 그런 것 같다. 여러 매체에서 이상기후, 수온 상승으로 인한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 증가 등 크고 작은 변화를 접하고 있지만, 점차 익숙해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일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이 당장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심코 한 행동 하나하나가 큰 파장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계속 가지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박세진(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

### 공연

## 9월 문화행사



### 클래식 <K-클래식 콘서트 5>

기간 2024-09-06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시간 19:30  
문의 1566-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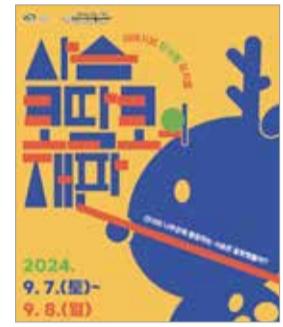
### 연극 <옥탑방 고양이>

기간 2024-09-06 ~ 09-07  
장소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문의 041-930-3710



### 연극 <참기름 아저씨>

기간 2024-09-06 ~ 09-07  
장소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  
시간 19:00(금), 14:00·17:00(토)  
문의 041-661-8031



### 연극 <사슴 코딱코의 재판>

기간 2024-09-07 ~ 09-08  
장소 천안어린이 꿈누리대공연장  
시간 11:00, 15:00  
문의 041-522-7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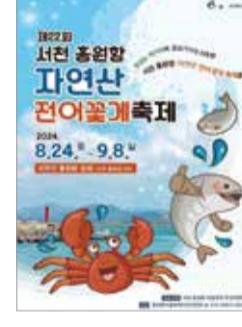
###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기간 2024-09-11 ~ 09-12  
장소 당진문화예의전당  
시간 19:30  
문의 041-350-2911



### 클래식 <살롱 드 공주>

기간 2024-09-26  
장소 공주문화예회관  
시간 11:00  
문의 041-852-0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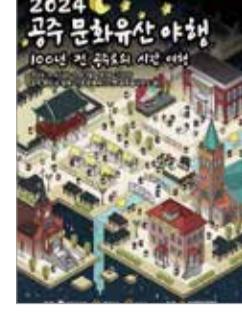
### 서천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

기간 2024-08-24 ~ 09-08  
장소 서천 홍원항 일원  
시간 종일  
문의 010-5900-6900



### 예산 맥주페스티벌

기간 2024-08-30 ~ 09-01  
장소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일대  
시간 종일  
문의 02-565-0501



### 공주 문화유산 야행

기간 2024-09-06 ~ 09-08  
장소 공주원도심 일원  
시간 18:00~23:00  
문의 041-852-8063



### 피크타임 페스티벌

기간 2024-09-27 ~ 09-28  
장소 산정호국민방지아워음악당  
시간 금 15:00, 토 14:00  
문의 010-2579-6071



## 최초 서양화가 나혜석의 비극

### 충남여성열전

#### ⑥ 나혜석

자유 결혼과 여성해방운동에 기치를 들었던 한국 3대 ‘신여성’으로 김일엽 스님, 나혜석, 윤심덕을 꼽는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김일엽과 나혜석은 오랜 동안 예산 수녀사에서 기거를 하며 속앓이를 한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런데 이들 3대 한국 신여성은 그 마지막이 순탄하지 않았다. 나혜석도 마찬가지. 그는 1896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일찍 일본에 건너가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 유학을 하고 귀국하여 미술교사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 이미 유명세에 오른 김일엽 등과 교류했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여성 해방운동이었고 나혜석은 동아일보 등에 기고를 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월간지를 발행하며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에 관련하여 5개월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때 그녀를 변호했던 조선인 변호사 김우영과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하게 된다. 그리고 남편 김우영이 변호사를 그만두고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만주 단동의 부영사로 발령이 나자 함께 만주로 가서 신혼생활을 하며 그림 그리기에도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행복의 순간은 너무 짧았다. 나혜석이 프랑스 여행 때 천도교 지도자 최린과의 불륜설이 퍼지게 되자 이혼을 하는 파경을 맞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나혜석의 삶은 내리막길로 빠지기 시작한다. 물론 일제하에서 최고의 전시회로 인정받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받는 영예를 얻기도 했지만 그의 뜨거운 여성해방운동은 심한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 고백장’을 발표했는데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는가? 그러면 남성 자신부터 정조를 지키라’고 남성을 공격했고 여성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취미의 문제라고 까지 했다. 심지어, ‘아이는 엄마의 살점을 떼어가는 암마’라고 까지 했다. 그러자 세상이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그의 친척은 물론 화단에서도 배척운동이 일어났다. 그의 그림 전시회도 냉담한 반응이었으며 그의 그림을 소유했던 사람들중에는 반납하거나 불태우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그는 세상으로부터 외면 당한채 예산 수녀사 김일엽 스님을 찾았다. 김일엽 스님은 그동안의 여성운동 등 세상일에서 탈출하여 만공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불심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런 김일엽에게 나혜석은 자신도 불교에 입교하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만공스님은 나혜석을 만나 주지도 않았다. “당신은 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동안의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스캔들이 원인이었는지 모른다. 그래도 나혜석은 수녀여관에서 스님의 계를 받기 위해 물러 나지 않고 5년 버티었다.

이 소식을 듣고 훗날 세계적인 화가가 된 고암 이응노가 찾아가 나혜석으로부터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보람있는 일이 라면 보람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나혜석은 ‘인형이 되기를 거부한 여성운동’을 펼쳤지만 그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 1948년 겨울 어느 길가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그 때 나이는 53세였다.



나혜석의 '자화상'

/수원시립미술관

변 평 섭



전 충남역사문화원장

**2024년 충청남도 장애인 채용박람회**

**9월 12일(목), 13:00 ~ 16:00**  
아산 이순신체육관 (충남 아산시 남부로 370-42)

**채용 면접** 현장채용면접  
※구비서류: 복지카드, 이력서

**취업 정보** 취업상담, 장애인보조기기 전시

**부대 행사** 이색 및 면접 스피치 퀸설정, 퍼스널컬러 진단 등

문의 041)856-7071-2 | 이메일 job@cnnrec.or.kr

**충청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의대 설립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국립의대 서명기간 2024.08.01.(목) ~ 10.31.(목)  
국립치의학연구원 서명기간 2024.07.01.(월) ~ 09.30.(월)

**참여방법**

**국립 의대 설립 서명 QR**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서명 QR**

온라인

##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04-1421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대광종합건설(주)	건축시공 기술자	2	041-584-8459	월 350만원	논산	(주)부광테크	생산·품질 사무원	1	041-740-3613	연 3,400만원
천안	(주)아림공조	생산·품질 사무원	1	041-415-2515	연 3,000만원	논산	유한회사동아테크	철골공(강구조물 건립원)	1	041-741-2336	월 450만원
천안	제이더블유테크	머시닝센터조작원	2	041-415-2388	월 240만원	보령	삼육식품	식품기계 설치·정비원	1	041-939-7850	월 300만원
천안	(주)동아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2	041-585-0051	연 3,000만원	보령	에스엔에스아이엔씨(주)2공장	생산·품질 사무원	1	041-402-7800	연 2,800만원
아산	(주)제이엔에스솔루션	제조 단순 종사원	5	041-520-1954	연 3,300만원	보령	금화식품(주)보령공장	기타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1	041-931-9646	연 3,500만원
아산	태경이엔지	일반기계 조립원	2	041-427-0106	연 2,800만원	보령	아주자동차대학교	학교행정 사무원	1	041-939-3014	연 3,000만원
아산	(주)서광	내선 전기공	1	041-333-8802	월 240만원	계룡	사회복지법인햇살아린이집	보육교사	1	042-841-9050	월 220만원
아산	(주)광성정밀	생산·품질 사무원	1	041-546-5851	연 3,000만원	계룡	삼성노블케어	기타보건·의료종사원	1	010-2195-4489	월 210만원
당진	(주)인지디스플레이	CNC 밀링기 조작원	4	041-359-5016	월 350만원	홍성	(주)태화애드건설	제조 단순 종사원	3	041-634-3900	연 3,600만원
당진	(주)가성이엔지	건설 배관공	1	041-430-8131	월 250만원	홍성	(주)태화애드건설	용접원	1	041-642-8800	월 280만원
당진	기보스틸(주)당진공장	자동차 부품 조립·검사원	3	041-410-2519	연 3,400만원	예산	씨에스아이엠(주)	화학물 가공장지 조작원	2	041-337-0880	연 3,650만원
당진	두드림엔지니어링	섬유 제조기계 조작원	2	041-355-8753	월 250만원	예산	(주)리빙키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	041-338-0504	연 3,400만원
서산	잠홍첨현대자동차(주)	자동차 정비원	2	041-668-0511	월 240만원	태안	(주)태성주류	배송·납품 운전원	1	041-673-4767	연 3,600만원
서산	(주)비앤와이이엔지	내선 전기공	1	041-665-1188	연 3,600만원	태안	(주)아다람농업회사법인	조경시설물 설치원	3	041-675-9200	월 220만원
서산	(주)스텝플러스(서산지점)	제조 단순 종사원	1	041-681-7920	연 3,800만원	서천	유한회사피엠에스텍	기타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4	041-955-1771	연 3,500만원
서산	(주)에코머터리얼스	기타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	041-669-8601	연 3,300만원	서천	성환건설(주)	토목공학 기술자	1	041-952-1432	월 400만원
공주	충청남도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 생활지도원	1	041-854-6473	월 250만원	부여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주)	회계 사무원	2	041-834-2958	연 3,500만원
공주	푸드올(주)	제조 단순 종사원	10	041-858-1047	연 210만원	부여	백제양돈영농조합법인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1	041-543-6358	월 430만원
공주	백제안과의원	병원행정 사무원	1	041-853-0975	월 245만원	금산	한일교통(주)	경리 사무원(운수)	1	041-754-2830	월 210만원
공주	(주)참조온에스에프	자재·구매 사무원	1	041-852-5525	연 3,000만원	금산	심천식품	쇼핑몰택배 준비원	1	041-750-7410	월 230만원
논산	주원통신(주)	케이블 설치·수리원	1	041-754-3887	월 250만원	청양	(주)승학환경개발	제조 단순 종사원	1	010-4830-4071	월 220만원
논산	(주)신화	제조·생산 관리자	1	041-742-9445	월 230만원	청양	(주)삼화그린텍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	041-942-5030	연 3,000만원

# 콩밭매는 젊은이, 딸기로 스마트팜 도전장

##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그린랩영농조합 대표 남장현

1800평규모 본격 재배…6차산업 진출도 모색

“고령화 사회서 농촌은 청년에게 블루오션”

이제 막 30줄에 접어든 젊은이가 대중까요 ‘콩밭매는 아낙네’의 칠갑산이 있는 청양에서 콩 농사에 도전장을 내밀고 조금씩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천안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의 첫 직장생활이 반복되는 일상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고민 하던 남씨는 낙농업을 하던 아버지로부터 한마디를 듣는다.

“나가 지금 하는 일은 예순 넘으면 그만 둬야 하지만, 농업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매력있는 일”이라는 말에 초심을 떠올린 남씨는 2020년 도시 일을 접고 농촌으로 고개를 돌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농수산대학 특용작물학과를

전공해 이에 대한 사전 지식도 있는 만큼 아버지와 함께 축사 일을 도우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콩 재배로 농사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그러나 막상 농사를 시작한 영농초기 소를 어떻게 돌보고 사료는 어떻게 주는지, 콩 심는 시기가 언제이고 제초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두 생소한 초보 농부로서의 어려움을 겪었다.

시골에 내려와 밤 늦도록 일을 하다보니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플 땐 가까운 병원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젊은이들과 어울릴 공간이 없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밤늦도록 일하다 버스가 밤 8시에 끊겨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기가 일수였다.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농사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갈등

도 겪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을 위해 이곳저곳 물어보며 해결책을 찾으면서 좌절하지 않고 견디어냈다. 특히, 청년농업단체인 4H는 남씨 같은 초보농부



여름 한철 농사일을 하느라 구릿빛으로 물든 남장현 청년농부가 청양읍내 콩밭에서 식물의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에게 각종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청년들과 소통과 교류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한 해 두해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5년차 농부에 이르러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제법 농사꾼 같은 면모를 갖추었다.

초기 임대받은 땅 등을 포함해 9천평에서 시작한 콩 농사는 지난해 5만여평으로 늘리고 현재는 뜻이 맞는 청년들과 함께 설립한 그린랩영농조합을 통해 모두 9만평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농사에 여유가 생긴 남씨는 스마트팜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해 말이면 1800평 규모의 연동하우스 스마트팜이 모습을 드러내 딸기농사를 본격적으로 해볼 예정이다. 이 스마트팜을 통해 체험과 가공분야 6차산업에도 진출을 꿈꾸고 있다. 짬을 내 지게차, 로더, 드론 자격증을 취득도 마쳐 농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남씨는 자신이 도움을 받은 4H 종무일을 맡아 더 많은 청년농부들과 정보교류와 소통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

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남씨는 “농촌은 고령화사회로의 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청년농업인이 주도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농사를 업으로 선택한 이상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할 각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량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며 “농사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 곳인 만큼 정직한 농부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도정신문팀



## 청양군 2024년 고추왕 90세 김종갑 어르신

돌려짓기·관수시설로  
친환경 명품고추 생산



“고추농사를 잘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과 토양관리이다. 운곡면 위라리는 물이 깨끗해 농작물이 잘 자란다. 관수시설로 물이 제때 공급되도록 해 가뭄피해를 줄였다. 토양은 농작물을 돌려짓기로 연작피해를 최소화 했다. 사람도 그렇지만 농작물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정성을 다해야 결실이 좋다.”

청양군의 올해 고추왕으로 선정된 김종갑(사진) 어르신의 수상 소감이다.

올해 90세인 김종갑 어르신은 한평생을 운곡면 위라리에서 보냈다. 유년기인 11세부터 부모의 농사를 도우면서 시작, 80여 년을 해온 고추 전문가다.

고령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타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 5형제가 틈틈이 일을 도와주고 있어 힘을 내고 있다.

김종갑 어르신은 500평 면적에 고추

를 심어 관리했다. 연작피해를 줄이려고 2~3년을 주기로 돌려짓기를 해왔다. 고추를 심지 않을 때는 콩이나 깨를 심어 지력을 높여왔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관수시설이다. 봄 가뭄시기에도 충분한 물을 공급해 작물이 건실하게 자라도록 했다. 안전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에는 친환경 약재를 사용했다.

김종갑 어르신은 “평생 농사의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몸은 힘들지만, 이번 고추왕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됐다”고 흐뭇해했다.

고추왕 선발은 육묘기술, 재배포장, 수확량, 제출물 심사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김종갑 어르신은 100점 만점 평가에서 89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

/청양신문 이관용 기자



## 홍성 월산1리, 칠석날 마을 위안잔치

주민 건강·행복 기원  
느티나무 앞에서 화합의 장

에는 은하수의 양쪽에 있는 견우성과 직녀성이 1년에 딱 한번 만나는 날로,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월산1리 주민들은 해마다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위안잔치를 개최해 왔다.

유태섭 마을이장은 “노령화로 지난 해와 비교해 사물놀이 등 행사를 대폭 축소했지만, 많은 주민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흥겹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뜻깊은 하루가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음력 7월 7일 칠석(七夕) 날 저녁

/홍주신문 김경미 기자

## 일상 소품으로 변신한 커피박

가치드림 이혜선 대표  
“재활용 가치 알리고 싶어”

당진 가치드림(대표 이혜선·사진)이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환경 의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다. 폐기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이는 물과 전분 등 친환경 재료로 섞어 만들기 때문에 땅에 그대로 묻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충남도청**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 오감 만족시키는 아르떼뮤지엄을 다녀온다

## 내포칼럼



김 곡 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제주 아르떼뮤지엄에 다녀왔다.

스피커 제조 공장을 재탄생시키며 바닥 면적 1400평, 최대 10M에 육박하는 웅장한 공간에서 빛과 소리가 만들어 낸 16개의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전시장은 내 안의 열정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다.

현실과 또 다른 상상 속의 새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예술 장르에 탄복할 뿐이었다.

예술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형형색색의 빛을 바닥과 벽에 그리고 작품에 걸맞은 음악을 제공하며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주는 미디어아트를 소개하자면 우선 ‘아르떼(Arte)’라고 하는 예술 놀이터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예술을 뜻하는 ‘아르떼’ 안에는 이미 예술과 기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시각, 청각, 후각에 이어 최근에는 미각까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아르떼 뮤지엄을 통해 예술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다.

푸르름이 살아 숨 쉬는 신성한 숲 ‘FOREST’나 생명의 순환과 사랑의 상징 동백 ‘CAMELLIA’는 자연과 하나 되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

점점 더 깊이감이 있는 채도, 명도의 색감이 자연 그 자체를 잘 표현하

“

제주 아르떼뮤지엄은 첨단기술과 예술 접목시킨 색다른 공간 학생들에게 환상적인 체험과 만족감 주는 교육 장소로 적합 미디어아트 전시관 고품질 콘텐츠 개발시…관광사업 선점기대

”



제주 아르떼뮤지엄 미디어아트

고 있었다.

대다수 관람객을 유인하고 있는 ‘WATERFALL’과 ‘WAVE’는 힘찬 물줄기와 거센 파도를 내뿜으며 집어 삼킬 듯한 거대한 자연 앞에 겸손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르떼뮤지엄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면 최고가 아닐까.

실제로 부모님과 손을 잡고 온 어린

자극하여 감각과 인식을 확장하는 영상분석 기술이 더해진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증강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환경을 사용하지만, 그 실제는 현실 환경이고 몰입 경험을 제공해 주는 가상·증강현실은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기술과 결합하여 실감형 미디어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세 가지 기술을 통합하여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로 불리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여행도 다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확장현실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는 여건을 준다.

충남형 아르떼뮤지엄.

인기 있는 최첨단 영상산업의 확대를 위해 제주나 강릉, 여수, 부산에 이어 충남에도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생긴다면 관광사업으로도 성공하리라 예감된다.

충남도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AR·VR·MR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차세대 예술 플랫폼을 만든다면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명화를 담은 빛의 정원으로 예술을 경험하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아르떼 뮤지엄에 향기와 촉감을 융합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보겠다.

## 게이샤 커피 한잔에 18만원…그 맛은?

### 커피향기

② 큐 그레이더란?  
(커피향미감정평가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재배된 게이샤 품종이다. 최상품이 작년 경매에서 1파운드당 2755달러에 팔렸다. 1파운드의 생두에서 커피가 20잔 쯤 나오니 한잔당 137.75 달러, 우리 돈으로 18만 6천원이다. 누가 이를 샀을까? 아마 이름 만 대면 알만한 부자가 절대용으로 샀을 법하다.

뉴욕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커피는 파운드당 2.3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농장의 그 품종은 어찌 1000배가 넘는 가격에 팔렸을까? 향미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큐 그레이더’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6000명 정도 되고 그 중 한국인이 10%나 된다는 글을 몇 년 전에 보았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이 자격증은 CQI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정 교육을 실시한 후 커피 향미의 감별능력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발급한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자격증을 갖지 못했다. 그 자격증에 도전할 의사도 없다. 내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늙었고 이제 미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기관이 많이 약해졌다. 십여 년 전 커피업계에 들어올 때 이미



▲커피 모습.

◀로스터가 커피의 맛을 감별하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로스터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 몇 달 동안 인터넷에서 다양한 원두를 구매해서 원두 간 맛 차이를 인식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이미 많이 약해진 미각과 취각을 회복시키려는 훈련이었고 투쟁이었다. 미각 기능은 서서히 살아났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미각기능이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은 로스팅을 하면서부터였다. 로스팅의 수준이 다를 때, 로스팅의 속도가 다를 때, 로스팅의 프로파일을 달리했을 때 맛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아는 것은 로스팅 책 임자의 생명이었다. 그 절박함 때 문이었을까, 아니면 미각이 살아있는 젊은 바리스타들과 함께 맛을 보고 그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결과였을까, 맛을 감별하는 능력이 점차 살아났다. 맛의 평가에 자신감

이 불었고 카페를 찾아온 고객들과 특정한 커피를 마시며 맛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때 뜻밖에도 맛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은 맛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리스타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커피를 주고 맛을 물었다. “맛 있네요” “쓰네요” “뒷맛이 오래 가네요” 등 대개 한 두 마디로 맛을 평가하고는 입을 닫는다. 간혹 길게, 서술적으로 맛을 묘사하는 지원자를 만난다. 그러면 나는 물었다. “엄마 요리 잘 하시나?” 모계, 또는 부계 쪽에 미각이 뛰어난 분이 있다는 대답을 듣는다. 맛 평가 능력은 유전이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일정 수준에 오를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최명돈 용연공방 대표(로스터)

## 여름이면 연한 자주빛 꽃

### 식물이야기

#### 맥문동

맥문동은 백합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이며 산과 들에 사는 겨우살이 풀이다.

뿌리는 보리와 비슷하고 잎이 겨울에도 사들지 않아 맥문동이라 부른다. 여름철에 연한 자주색 꽃이 피고 10월이면 푸른빛이 도는 열매를 맺는다.

뿌리줄기는 굵고 땋여하며 수염뿌리의 끝이 땅콩처럼 굽어진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맥문동이라는 부위는 굽어진 수염뿌리다.

‘불사초’ 또는 ‘겨우살이풀’이라고 불리는 것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모두 강인한 생명력을 뜻한다.

맥문동의 꽃말은 ‘겸손, 인내, 번영, 기쁨의 연속’으로 뿌리의 강인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맥문동은 식용 약재로 청양군이 최대 생산지이며 1993년 9월 6일 청양, 부여, 밀양이 주산지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우리 지역 주 재배지는 청양군 남양면 일원이며 지역 흐자 소득 작목으로 남들이 알까봐 조심하며 재배했던 작목이기도 하다.

청양은 일교차가 큰 기후조건과 높은 재배 기술로 고품질 맥문동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다. 필자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과장으로 재직 시에는 맥문동 연구회를 결성하여 각종

기술교육과 정보교환 및 기공품 개발 유통 등을 전개토록 하는 등 상품화로 소득화에 주력했던 작목이다. 특히 코로나 19 예방에는 ‘맥문동이 최



고운식물원의 맥문동

- ▶꽃말 - 겸손, 인내, 번영
- ▶개화시기 - 5~8월
- ▶분류 - 백합과
- ▶크기 - 30~50cm

고’라고 역설한 기억도 난다.

서천지역도 재배농가가 적지 않아 서천군 장항읍 송림산립욕장 일원에서는 해마다 맥문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맥문동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며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조경용으로도 많이 쓰이며 요즈음은 가을에 씨앗을 채취한 뒤 육묘해 조경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예로부터 ‘신선의 약재’, ‘신선의 음식’이라 불렸으며 마른기침이나 각혈, 가래 해소에 좋으며 항산화 작용, 진정, 면역증강, 항균작용 등의 효과가 뛰어나다. 맥문동의 효능은 고대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신농본초경’에는 ‘맥문동을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할 수 있으며 양식이 떨어지더라도 굶주림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기록돼 있다.

청양 고운식물원에서도 우리 군의 특산물인 맥문동을 홍보 보존하고자 7개 품종을 수집해 관리고 있으며 매년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시 전시하고 있다.

/강상규 청양 고운식물원 기획실장

#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  
주요현안 논의·대안 제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실·국 출연계 회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9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예정된 제356회 정례 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선8기 충청남도 후반기 조직개 편안 제출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 발언은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신

정했으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농 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은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장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 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함께 소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고수온 경보에 어업인 피해 최소화

최근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생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잇따랐다. 8월 19일 도의회는 서산, 태안 등 천수만 해역의 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방문하고 양식장 폐사 등 어업인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어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서산3)과 신영호(서천1)·편삼범(보령2) 의원이 참석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정광섭 의원(태안2)과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태안1)도 함께했다.

## 조례안 예고

### 충남 문화유산 활용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 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남 자연유산 체계적 관리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유관순상 후보 자격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가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신순옥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하여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으나, 자격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순옥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유관순상의 권위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 직업훈련을 비롯한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와 판로 확대 등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면서도 생산성 강화와 매출 증대 등 경영상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지성과 시장성의 두 관점을 충족해야 하기에 종사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편의 제고

#### 정병인 의원(천안8)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병인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26,294면)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충남미술관 전문성·예술성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이 대표 발의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에 작품추천회와 가격평가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과 직무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개정에는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시예술감독 위촉을 통하여 전시의 전문성·예술성을 높이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조례안은 ▲제명 변경 ▲작품 추천 회의와 가격평가회의 구성과 역할 ▲전시예술감독의 위촉, 직무, 임기, 보수 ▲소장품 수집 심의 등 관련 별지 서식 누락분 추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2027년 예정인 충남미술관 개관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충남미술관의 보다 수준 높은 작품 수집과 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뇌병변장애인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통계청 2024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뇌병변장애인은 24만 546명이며, 충남은 1만 438명으로 10년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의 뇌병변장애인은 도내 장애인 13만 4004명 중 지체, 정각, 시각, 지적장애에 이어 5번째(7.8%)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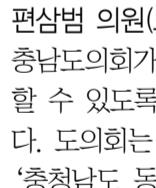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돋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가족의 휴식 지원 등 지원 사업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들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뇌병변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맹견 관리로 도민 안전 확보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며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 상임위 위원장 인터뷰

여야를 떠나 도의원 모두의 힘을 모아 항상 도민의 편에 서서 소통해 가겠다는 제12대 후반기 충남도의회가 출범했다.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도정 현안이나 정책을 두고 어떤 고민과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일문일답을 통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구축 안전 최우선”



## 행정문화위원회 - 박기영 위원장(공주2)

명품 문화관광 도시 조성 노력  
효과적 국가유산보호 기반 다져

## 행정문화위원회 활동 방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충남 조성’에 주력하겠다. 최근 다양한 사회적 재난과 전염병 등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문화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문화로 풍요로운 충남을 만들겠다. 취약계층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도민 친화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해 가겠다. 문화·예술, 지역관광, 체육·복지·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 등 문화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해 충남이 명품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그동안 지속된 청년정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청년 간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 유출 또한 심각하다. 올해 2분기 충남 청년 고용률은 43.7%로 전국 평균(46.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맞춤형 정책 빌글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가 유산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되면서 보존, 관리·활용에 대한 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7월~8월 회기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정비 중이다. 문화유산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 개념에 대해 도민의 이해를 돋고, 소관부서 및 관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국가유산 보호 체계가 더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쓰겠다.”

문화유산 개념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유산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문화유산 관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개편됐다. 재화적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 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의 한 구절이다. 본 의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 먼저 조례 정비를 통한 제도적 체계 마련으로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또 도민의 문화 향유, 교육, 홍보, 심지어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도민에게 한마디

“모든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민생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음을 되새기며, 현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해답을 찾겠다. 충남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 만큼 도민 개인의 바람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꿈꼼히 행거나가겠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 되도록 하겠다.”

## “빈틈없는 복지체계·삶의 터전 조성”



## 앞으로의 각오는?

“복지환경위원회는 충남도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다투고 있는 상임위원회로, 도민 각 개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 정신을 한곳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든 이를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도내에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고 노력해 간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빈틈없이 전달되는 복지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가기 위해 힘쓰겠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는 정책과 제도의 유연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법과 제도가 앞서가기 어렵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와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 복지 사업 대부분 정부의 방향과 발맞춰 추진되다 보니 충남만의 정책추진이 다소 어렵다. 이러한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충남에 꼭 필요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주 소통해 나간다면 촘촘한 복지행정 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충남 현안과 대안은?

“비단 충남도민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자살률(충남 1위) 등 수많은 현안이 산재해 있다. 어느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다. 이를 풀어야 할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위원장으로서 큰 부담이 느껴진다. 특히 인구나 환경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만 높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관련 없는 미래 세대의 문제’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어 안타깝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기 이전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도민의 인식 변화 등

## 복지환경위원회 - 김민수 위원장

실효성 높은 사업발굴 도민 체감↑  
호국원 유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의 노력이 먼저 수반돼야 한다. 이외에 지역 현안으로 충남 도내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가 시급하다. 현재 충남 국가유공자들은 고향을 놔두고 전북이나 충북에 안장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충남만이 유일하게 호국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청과 보훈의 고장 충청남도’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보훈 정책을 펴고 있는 충남도가 호국원 유치에는 유독 소극적이다. 충남 특히 부여지역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집행부와 소통강화 방안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견제·감시하는 것이나 지역문제를 신속 원활하게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꼭 필요하다. 특히 복지·환경문제는 도민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나친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충남도민의 인간답고 건강한 삶’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일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동료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 충청남도의회

## 지역민원상담소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가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 양방향 소통을 위한 현장창구

충남도민의 고충 민원 상담, 임법 정책견의 등  
도민 의견수렴

## 의정활동 자료수집의 장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시 수렴된 도민의견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테이블

충남도민·공무원 각종단체 등이 상담관과  
지역발전을 논의

## 스마트 원격 사무공간

도의원 원격지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거점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천안1 천안시 동남구 충질로 115, 3층	041-554-0008	계룡 계룡시 서금암로 17, 2층	042-840-5719
천안2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401호	041-566-3702	당진 당진시 시청2로 18, 2층	041-358-3250
천안3 천안시 서북구 미라 16길 14	041-574-0007	금산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3, 2층	041-751-5555
공주 공주시 백미고을길 17-12, 2층	041-855-2242	부여 부여군 부여읍 부장대로 28, 2층	041-835-3330
보령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5, 2층	041-936-5388	서천 서천군 서천로 157-1, 2층	041-952-1650
아산1 아산시 외암로 1544-3, 2층	041-547-5927	청양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4길 37, 301호	041-943-0613
아산2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21, 2층	041-546-1101	홍성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32 C동 201호	041-633-2333
서산 서산시 고운로 153, 2층	041-665-1235	예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1길 20, 6층	041-333-9606
논산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041-734-0064	태안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1, 1층	041-675-0313

각 지역별 상담소의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충남농사랑 선물세트 \*

# 충남농사랑 추석 선물 특별전

충남농사랑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 추석 선물세트



하늘안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천안배 선물용배**

**15%** 할인가 **35,700원**

6kg(9~10과)



금정일밤농원  
**정안알밤 특**

**15%** 할인가 **38,420원**

4kg



천고삼H&B  
**골드 수 홍삼농축액 선물세트**

**15%** 할인가 **18,615원**

480g



부여은산차한표고농원  
**표고버섯 선물세트 1호**

**15%** 할인가 **44,625원**

생표고버섯+표고버섯슬라이스+버섯가루



대광수산맛김  
**대천 재래김**

**15%** 할인가 **15,215원**

10봉



오곡양조장  
**한산소곡주 750 세트**

**15%** 할인가 **23,375원**

750mlx2병



농업회사법인(주)인주라이스  
**아산을 담다 6종세트**

**15%** 할인가 **30,345원**

280gx6=1.68kg



웰빙햇살농장  
**구기자선물세트**

**15%** 할인가 **48,365원**

건구기자300g+분말220g+박스&amp;쇼핑백



서산동부전통시장갓마을협동조합  
**갓마을 도시락 감태**

**15%** 할인가 **28,135원**

4g/20봉



지애(구\_자연채움)  
**참 조은 우(牛) 지애 1호**

**15%** 할인가 **83,045원**

국거리+불고기+산적(각400g/1등급)



강경장수젓갈  
**젓갈 3종선물세트 1호**

**15%** 할인가 **33,915원**

젓갈쌈장+꼴뚜기젓+오징어젓(각 500g)



농업법인주식회사예당호농원  
**홍로**

**15%** 할인가 **57,120원**

5kg(19~20과)



해나루한과  
**우리밀호박고구마약과**

**15%** 할인가 **12,495원**

1kg



태현보호작업장  
**레드솔트 선물세트 3호**

**15%** 할인가 **25,925원**

천일염+흑마늘+꽃게(각 450g)

상품 구매는 충남농사랑 웹사이트 2024 추석기획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충남농사랑 고객센터

**070-5217-9477**검색창에 “충남농사랑”을 입력하세요. 

충남농사랑  
바로가기 QR코드



2024 추석 카탈로그  
바로가기 QR코드